

‘도서정가제’ 논란에서 ‘해리포터’ 열풍까지

출판인이 뽑은 ‘올해의 출판계 5대 이슈’ …

도서정가제 논란이 1위로 뽑혀

올해 우리 출판계는 변혁기를 맞아 희비의 쌍곡선을 그렸다. 온라인 서점과 전자책이 디지털 시대의 총아로 떠올랐는가 하면 중소서점들은 벼랑으로 내몰렸다.

이른바 ‘빅 5’가 서점가를 화려하게 장식했지만, 인문서들은 서가 뒷편으로 밀려났다.

한편, 하반기에 불거져 나온 도서정가제 논란은 출판계를 뜨겁게 달군 최대 이슈였다.

다음에 출판인들이 직접 뽑은 출판계 5대 이슈를 살펴본다.

올 한해 우리 출판계는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출판 인프라 구축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온라인 서점의 고속성장은 출판 유통 혁명을 가시화했고, e-북은 새로운 매체의 출현을 예고했다. 또 전송권의 저작권 소유를 명시한 개정 저작권법이 공표됨으로써 2차저작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반면, 온라인 서점의 할인판매는 오프라인의 반발을 사 9월 초 도서정가제 논란으로 불거져 나왔고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하반기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출판 시장이 또다시 불황의 늪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해를 마감하는 출판계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하다.

《출판저널》은 올해 출판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뽑기 위해 각 출판사와 관련단체에 설문지를 보내 ‘올해의 출판계 5대 이슈’를 선정했다. 이에 응답한 출판사 및 출판관련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마고원, 궁리, 길벗, 김영사, 나남, 다른세상, 당대, 돌베개, 또하이의문화, 뜨인돌, 문예출판사, 문학과지성사, 바다출판사, 범우사, 사계절, 삼인, 에릭양에이전시, 열림원, 영진닷컴, 웅진닷컴, 이끌리오, 지호, 한울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구소, 한국출판인회의.

1. 도서정가제 논란

도서정가제 논란이 석달째 출판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도서정가제 입법화와 할인판매를 둘러싼 온·오프라인 서점 간의 줄다리기가 도서정가제 존폐를 둘러싼 범출판계의 공방으로 번졌다. “도서정가제가 무너지면 천박한 상업주의와 할인경쟁이 판을 치고 대부분의 중소서점과 출판사가 경쟁력을 잃고 도산, 출판문화가 붕괴할 것”이라는 출판계의 입장과 “도서정가제는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의 경쟁논리에 위배되는 것”이란 온라인 서점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 소속 단행본 출판사 300여개사는 현재 할인판매를 하는 온라인 서점에 도서공급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 온라인 서점은 “도서공급 중단은 출판인회의와 대형서점간의 담합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하거나 공동 게시판을 운영, 네티즌들의 여론을 대대적으로 규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출판인회의측도 “온라인 서점의 서지 정보 제공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맞불을 놓아 도서정가제 논란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한국출판인회의 출판산업위원회 이승용 위원장은 “현재 YES24와 와우북이 할인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폭스북·북토피아·모닝365 등의 온라인 서점도 12월에 열리는 ‘도서정가제의 탄력적 운영을 논의하는 준비모임’에 참가의사를 밝혀 왔다”며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업계의 대립이 법적 공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 온라인 서점의 고속성장

올 한해 온라인 서점의 약진은 눈부셨다. 올 초 50여개에 불과했던 업체수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늘어나 지금은 1백50여개를 넘어섰고 온라인 서점의 선두주자 YES24의 경우 11월 현재 전년 대비 연매출이 15배 이상 신장했다. 또 전체 온라인 서점의 총매출이 전체 책 시장의 4%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서점이 활성화된 지 불과 1년만의 일이다. 이는 미국 온라인 서점의 매출이 전체 책 시장의 2%를 차지하는데 4년이나 걸린 것에 비하면 대단히 빠른 성장세다. 온라인 서점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게는 30~40%에 달하는 도서할인, 풍부한 서지사항 제공, 집에서 원하는 책을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한 구매시스템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인 성장에 가려 드러나지 않은 환부도 있었다. 후발 온라인 서점들이 시장확보를 위해 지나친 할인경쟁을 벌



도서정가제가 올 한해 출판계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사진은 지난 11월 9일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이창연) 주최로 열렸던 <도서정가제 입법 촉구 및 서점·출판인 결의대회> 모습.

인 점이 그것이다. 고객유치를 위해 심지어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책을 팔기도 했다. 또 온라인 서점에 고객을 빼앗긴 지방의 소형서점들이 잇따라 문을 닫아 서점업계를 긴장시켰다. 온라인 서점의 고속성장이 신규 시장을 확대하기보다 기존 시장을 잠식했다는 분석이 가능한 측면이다.

3. 전자책 출시

전자책이 디지털 시대의 총아로 떠올랐다. 단말기에 내려 받아 보는 새로운 읽기 방식과 종이책의 반값에 해당하는 싼 가격 때문에 책을 대신할 새로운 매체의 출현으로 주목받았다. 그와 함께 책의 종말론이 대두했다. 앞으로 몇년 내에 종이책이 경쟁력을 잃고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성급한 예측이 난무했지만 '종이'의 고유한 기능과 가치는 영원할 것이라는 반론이 일어 양자의 상호공존 가능성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토피아, 바로북, YES24 등의 유료사이트에서 3천 원~5천원에 제공되는 유명작가들의 작품이 최고 3천회 이상 다운로드 전자책 시장이 현실화됐음을 입증했다. 또 지난 9월 26일 정보통신부가 전자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3년간 민·관 합동으로 237억 9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e-Book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전자책 업계에 날개를 달아줬다. 하지만 선결 과제도 많다. 뷰어 표준화 문제, 인세를 포함한 저작권 계약 문제,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는 보안기술 문제가 e-북 산업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와 정통부가 각각 산하기구로 '전자책권소사업'(EBK), '디지털콘텐츠포럼'을 구성해 관련업체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4. 전송권을 둘러싼 2차저작권 논의

'전송권'을 명시한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온라인상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수많은 형태로 불법복제하는 정보 해킹에서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다. 그런데 개정 저작권법이 "도서관이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도 디지털 복제와 상호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둠에 따라 이 조항을 둘러싼 폐지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3조에서 디지털 복제를 할 수 있는 단체와 기관의 범위를 제한하고 복제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출판계는 "도서관의 복제와 전송 허용조항이 너무 애매해 저작권과 출판권의 침해 소지가 많아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변화된 저작권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발족돼 눈길을 끌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문예학술저작권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6개 단체가 총 1억2천만원을 출연해 지난 7월 설립한 이 단체의 주 업무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위탁 관리 ▲사용자와 저작권자의 '복사용허락계약' 체결과 이용요금 징수 ▲징수한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것 등이다.

한편, 출판물을 영상이나 기타 다른 문화상품으로 재가공할 때 그 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두고 출판사와 작가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출판사측은 2차저작권의 지분을 요구했고 작가들은 "출판사가 2차저작물을 파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출판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5. <해리포터> 시리즈의 도서시장 석권

지난 해 11월 국내에 상륙해 현재까지 250만부가 팔린 <해리포터> 시리즈(조앤 K. 롤링, 김혜원, 문학수첩)는 종이책의 견제함을 만방에 알렸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해리포터와 불의 잔> 등 현재 네권이 출간된 이 시리즈는 200여개국에서 49개 언어로 번역·출간돼 전세계적으로 7천만부 이상 팔려나갔다. 학생들 사이에서 '해리포터 신드롬'까지 불리워진 이 시리즈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종이책의 고유한 가치는 유효하다는, 출판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출판인들에게 심어줬다. 출판관계자들 일각에서는 "비싼 저작권료를 지불한 외국 작품이 국내 독서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보였으나 <해리포터> 시리즈의 성공은 종이책의 미래에 청신호를 밝혀준 '상징적 사건'으로 출판인들의 뇌리에 남았다.

순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본격문학 및 인문사회과학의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출판인들은 그 밖에 아동물 시장의 성장, 황석영의 동인문학상 후보 거부, 김희선 누드집 파문, <도스토예프스키 전집>과 <한국생활사박물관> 시리즈의 출간,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한관련도서 열풍, IMF 이후의 실용서 강세 현상 지속, 제8회 북경도서전에 첫 한국관 운영, 베스트셀러는 잘 팔리고 그 외에는 판매가 부진한 도서관매의 양극화 현상, 전문성을 띤 출판사들의 등장에 따른 출판영역의 다각화, 교과서 불법영업에 대한 교육부의 엄중처벌 결정 등을 올 한해의 출판이슈로 꼽았다.

— 강성민 기자